

2017.09+10 | Vol.192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Bab Peacemaker





8월 5일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제 3회 밥피스메이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밥피스메이커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이념과 정치적 장벽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한반도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출범한 순수 민간 평화통일운동으로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밥’이라는 식탁 공동체 정신으로 치유하고자 시작된 운동입니다.

매년 8월 개최되는 밥피스메이커 행사는 올해 역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각계각층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북한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및 레드엔젤, 광명농약단, 평양예술단의 특별 공연으로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에 이어졌고, 이후 ‘생살이 퍼포먼스’와 모두가 함께 둘러 앉아 식탁 교제를 나누는 ‘밥상퍼포먼스’ 순서를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뒤 무대 위 남북한 대표와 남북한 병사들을 위해 차려져 있는 주인 없는 밥상을 우두커니 바라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저미던지요. 내년에는 손님 없는 밥상이 아닌 남북한이 다함께 화해의 징표로 밥을 나누어 먹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9월에 있을 필리핀 까만씨 다일공동체 개원식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세부의 가장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자 찾아가던 수상 빈민촌, 까만씨 마을!

현재 까만씨 마을에서는 원주민 부족 회관으로 지어진 수상 가옥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 장소는 밥퍼와 빵퍼 뿐 아니라 까만씨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다일공동체! 서울 청량리에서 밥 한 그릇의 나눔으로 시작된 다일공동체의 첫 마음이 필리핀 세부의 까만씨 마을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의 나눔의 기적이 필리핀 세부에서도 계속되길, 많은 분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형제, *척* 믿든 불림

CONTENTS

02

밥피스메이커 행사

04

캄보디아프놈펜,
빵퍼로 전하는 사랑

07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08

천사기업 인터뷰

10

다일의 국내외
현장 이야기

27

무명 후원자 및
천사병원 구인 광고

28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1

아동결연 요청

32

신규 후원회원

34

후원 안내

C.O.V.E.R.S.T.O.R.Y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밥피스메이커 행사를 위해 공연을 펼친
레드엔젤 팀과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이
함께 밥피스메이커 슬로건을 외치는 모습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은진

디자인, 인쇄 | 들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7년 9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제 3회 밥피스메이커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뤄 이곳 비무장 지대가
남북한 동포의 만남의 장소이자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① 평양예술단 공연모습 ② 레드엔젤의 태권도 시범 모습 ③ 행사 슬로건 외치는 밥피스메이커 참석자들



① 남북한대표와 병사들을 위한 밥상 ② 밥상퍼포먼스 후 점심 식사 중인 참석자들

지난 8월 5일 오전 11시, DMZ 내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제 3회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념과 정치적 장벽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2015년 8월, 7인의 공동대표와 70인의 실행위원이 함께 모여 출범한 밥 피스메이커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순수 민간 주도의 평화통일운동으로 남북이 밥부터 나누며 화해의 물꼬를 터 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우리 민족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밥’이라는 식탁 공동체 정신으로 치유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을 남북이 함께 모색하고자 시작된 밥피스 메이커.

이번 행사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학계, 종교계, 정치계를 망라한 각계각층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한 가운데 민병두 국회의원과 정순홍 한동대 총장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밥피스메이커 선언문을 낭독한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은 “가정의 행복이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듯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도 밥부터 나누어 먹으며 화해하고 일치되는 길로 함께 새 출발을 맞을 수 있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어 레드엔젤, 광명농악단, 평양예술단의 특별공연으로 한층 더 달아오른 행사 분위기 속 통일의 염원을 담아 대형 쌀독에 쌀을 붓는 ‘생쌀이 퍼포먼스와 행사의 하이라이트, 참여자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식탁교제를 나누는 ‘밥상퍼포먼스’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제 3회 밥피스메이커.

행사 장소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었던 만큼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40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던 점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행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뤄 이곳 비무장 지대가 남북한 동포의 만남의 장소이자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밥 피스메이커를 시작으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dajl**

프놈펜 다일, 빵퍼로 전하는 사랑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세계 최대 석조사원,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고속 성장중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200억, 하루 1달러 이하의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20%에 이르는 등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다일공동체는 2004년, 수도 프놈펜 내 최대 빈민 이주 지역인 '언동 마을'에 밥퍼 센터를 설립, 빈민층을 대상으로 밥과 빵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M11:30

도시경적이 사라지기도 전에 나타난 프놈펜 외곽도시, 언동마을.

저희가 도착할 때 즈음 밥퍼 센터에는 이미 점심을 먹기 위해 200여 명의 아이들이 울망졸망 모여 앉아 점심 식사를 기다리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일렬로 길게 줄을 늘어난 아이들.

봉사자들은 줄지어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식판을 건네주었습니다.

배식 전 기도중인 아이들

배식을 위해 줄 서 있는 아이들





오늘 메뉴는 캄보디아식 볶음밥 바이차!
과일과 채소볶음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한 사랑 가득, 건강 식단
입니다.

오늘 이 한 끼가 전부인 아이들도 있기에 식사를 나눌 때는 늘 센터
에서 갓 구운 빵도 함께 얹어 줍니다.

“어쨌든 예수”

감사 인사와 함께 식판을 받아 든 아이들.

자리에 앉아 조그마한 입으로 마지막 밥 한 톨까지 남기지 않고 야
무지게 식판을 비워냅니다.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아이들은 밥을, 저희는 나눔의 기쁨을 함께 맛보았던 행복한 점심이
었습니다.

❶ 아이에게 식판 건네는 자원봉사자 ❷ 맛있게 점심식사 중인 아이들

PM2:00

빈곤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빵교육을 실시중인 다일공동체는
실습생들에게는 기술을 알려 주고, 실습생들이 만든 빵은 빈곤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으로 기술(일퍼)과 빵(빵퍼)을 나누는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 6개월째,

비율도 제대로 맞추지 못 해 반죽조차 힘겨워하던 실습생들은 이
제는 반죽부터 직접 구워 내는 것까지 선생님의 지도 없이도 알
아서 척척 하루 400여 개의 빵을 구워냅니다.

단팥빵, 소보루, 슈크림빵 등 모양도 맛도 다채로웠는데요.
갓구운 빵을 직접 맛보니 어느 빵집에 뒤지지 않았습디다.

오늘은 실습생들이 갓 구운 빵을 가지고 인근 쓰레기 매립지역
주민들에게 향했습니다.

멀리서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곤 금세 주변으로 몰려든 주민들.
빵을 자주 나누었던 지역이라 그런지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기
위해 dot자리를 떠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르르 우리 앞에 다가와
줄을 섭니다.

빵을 받아 든 아이들의 맑은 미소!

우기철이라 갑자기 쏟아진 비로 애를 먹기도 했지만 빵을 받고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모든 피로가 빗물에 함께 씻
겨지는 듯했습니다.



❶ 실습생을 지도중인 최원삼 강사
❷ 빵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쓰레기 매립지역 아이들

PM8:00

밤에는 이동 빵퍼를 이용해 프놈펜 시내 인근을 돌았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엑자이’라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팔 수 있을만한 것들을 찾아 판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벌이는 5달러(한화5,000원) 내외로 빈곤층 중에서도 최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다일공동체는 ‘엑자이’분들에게 일주일에 2-3번 200-300여 개의 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날 밤 역시 200여 개의 빵을 가지고 나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주머니, 시각 장애인 아저씨, 연세 지긋한 어르신 등 2,3시간



엑자이들에게 빵 나눠주는 모습

에 걸쳐 엑자이분들에게 빵을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나온 한 소년은 빵을 건네주자 아버지가 만져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손을 빵봉지에 가져다 대드리며 어찌나 행복한 표정을 짓던지요.

빵을 건네 받은 엑자이분들의 행복한 미소에 빵 한 봉지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던 가슴 뭉클한 밤이었습니다.

헌혈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기부금으로 진행된 캄보디아 프놈펜의 빵퍼 사업.

수혜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니 헌혈기부권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한번의 헌혈로 두 배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헌혈 기부권 사업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곳에 더 따스한 나눔이 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DAIL**



1 2 엑자이들에게 빵 나눠주는 모습



산 식구들

김연수 시인

작은 나무 큰 나무
함께 사는
산속에서는

걸림돌도
노래로 바꾸는
슬기로운 개울가

풀꽃들의 고운 미소
어둠도
따가지 못하고

울퉁불퉁 바위 곁에 핀
작은꽃
어여빠라

산새들의 노래는
빗줄기도
적실 수 없다네

아, 다정해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산 식구들



다일공동체
천사기업을 소개합니다!

한전산업개발

(사장/주복원)

노사문화팀 김범석 사원

천사기업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 기업입니다.

천사기업이 되면 증명하는 현판



밥퍼봉사 후, 한전산업개발 임직원들의 단체사진

Q1. 한전산업개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지난 199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27년을 맞는 한전산업개발은 62개 사업소 3,900여명의 임직원이 국·내외 발전소 운영과 정비, 전기계기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기간 산업 중 하나인 전력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편리한 전기 사용에 이바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 ‘탈(脫) 원전’, ‘탈 석탄화력’ 등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올해 초 ‘Sustainable Energy Innovator for better world’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태양광·풍력 등 환경파괴 없이 지속가능한 청정 전력에너지 생산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미래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이념인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전산업 나누리사회봉사단’을 조직,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의 결식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천사기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봉사단이 지난 3월 사랑의 쌀 나눔과 자원봉사를 위해 처음으로 밥퍼를 찾았을 때 그동안 밥퍼를 다녀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이웃 사랑 실천의 흔적을 밥퍼 곳곳에서 느꼈습니다. 특히 1988년 작은 냄비에 담긴 라면 한 그릇의 시작이 30여년이 지난 지금 ‘천만 그릇의 식사’가 되기까지, 그 속에 담겨있을 많은 이들의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느꼈



한전산업개발, 쌀 후원 전달식 모습

습니다. 그래서 비록 미약하지만 회사가 가진 힘을 보태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에 저희는 '천사기업'을 약속했고, 회사의 전문분야 중 하나인 ESCO사업을 통해 밥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ESCO사업은 고효율의 기자재 설치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실내 형광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면 매월 전기요금 절약과 함께 더 밝은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교체비용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초기 공사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시공은 회사의 기술자들이 직접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방향으로 밥퍼에 ESCO사업을 전제하였습니다.

Q3. 회사에서 사랑의 쌀 나눔 캠페인을 진행중이라 들었는데 어떤 나눔인지 궁금합니다.

나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저희 회사 봉사단은 2017년 한 해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전달하는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전달되고 있으며, 회사는 올해만 벌써 7톤의 쌀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정성은 자신의 작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로부터 포상을 받은 직원, 사내 계단걷기 운동 우수 직원, 생일을 맞이한 직원 등 많은 직원들이 비록 적지만 자신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기부금을 건넸고, 이러한 진정어린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한전산업개발 임직원 밥퍼봉사모습

이처럼 소박한 기쁨을 나누겠다는 생각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 나눔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나가는데 앞장서는 한전산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4. 천사기업을 통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시길 기대하시나요?



한전산업개발 임직원 밥퍼봉사모습

을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다일공동체와의 인연을 맺으며 천사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 노동조합여러분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마련해 준 사랑의 쌀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조합 가족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나눔 활동은 물론, 천사기업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사회 구현'이라는 기업의 이념과 나눔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 노·사가 하나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 실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한전산업의 이같은 이웃 사랑이 밀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동참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aul**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꾸살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 온 세녕군 (유니스김 가족 방문)

네팔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미국에서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유니스김 집사님의 가족이 일주일 간 밥퍼 센터와 호프스쿨을 섬겨주셨습니다. 3년 전에는 아들인 김세녕 군만 함께 하였는데, 이번에는 막내딸 김다녕 양까지 함께해 주었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오셔서 호프스쿨 아이들과 함께 음악수업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재능기부를 통하여 비올라 연주를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신두팔축 지진지역에 페인트를 칠하며 봉사를 해주셨으며, 위생교육을 돕고 대안생리대도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다녕양은 올해 16세가 되었는데, 자신과 같은 나이의 결연된 아동과 만나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니스김 집사님은 열심히 사는 이유와 나눔의 기쁨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방문하셨는데, 의

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실천하는 참된 자녀 교육을 보이신 유니스김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지속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가정과 이웃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유니스김 집사님 가정

마누하르 강독 쌓기 지원

네팔은 여전히 농업국가입니다. 농사는 물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인 네팔에서는 우기를 기다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우기에는 비가 과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오고 우기가 끝나면 물 한방 보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져 땅이 마르고 갈라집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마누하르란 마을 안에 있습니다. 마누하르란 이름은 마누하르 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누하르 강은 아름다운 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고, 모든 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강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특히 인도 국경에서 올라온 빈민들은 이 강물을 떠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네팔다일공동체는 꾸준히 강을 청소하는 운동을 벌이며 강 바로 옆에 있던 돼지농장은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마을에 공동화장실을 짓는 등 마누하르 마을의 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교육,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누하르는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되는 일이 잦기에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네팔 다일공동체는 마을과 협력하여 강독을 쌓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박고, 흙자루를 쌓은 뒤 튼튼한 줄로 엮어 그 위에 흙을 얹고 나무를 심습니다. 강이 범람하는 횡수도 많이 줄어 들었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독을 쌓아 경관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마누하르 마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후원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입니다. 마누하르 마을에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운 아이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후원 회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dajl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1 2 강독 쌓는 중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 방학에는 나눔을 실천해요!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여름과 겨울 방학은 달콤한 휴식 시간이며, 그간 부족했던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밥퍼를 찾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친구와 부모님과 함께 밥퍼를 찾는 학생들. 일손이 많이 필요해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이 참 소중한 곳이기때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밥퍼 방문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이 밥퍼에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 눈에도 손주, 손녀처럼 예뻐보이셨는지 얼굴 가득 미소로 화답해 주십니다.

학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 이같은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나가길 기대합니다.



① (좌)김미진님, 김혜린, 김민정학생 ② 정다희,정다윤 학생 ③ 김준영 학생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선물해준 DGB대구은행

매년 우기철만 되면 집안으로 범람하는 빗물, 화장실과 주방이 분리되지 않아 풍기는 악취는 홀로 생활해야 하는 땅휴김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땅휴김씨의 사정을 아는 마을 주민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각각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항상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었나 봅니다.



① ② 대구은행 팀의 집보수 봉사 모습

먼 나라 한국에 있는 DGB대구은행에서 땅휴김씨를 위해 집보수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구은행 봉사팀은 오셔서 다시는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입구를 수리했으며 그간 분리가 되지 않아 불편했던 화장실과 주방을 분리하기 위해 문을 설치해주셨고, 바닥재를 새로 놓는 작업뿐 아니라 창문과 내벽, 외벽에 새롭게 페인트칠까지 해주셨습니다. 집수리를 마치고, 마지막 주변 정리정돈까지 깔끔하게 해주신 대구은행 봉사팀. 대구은행 여러분들 덕에 땅휴김씨의 집이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집 보수 전과 후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할까요. 새로 단장된 집을 보며 좋아하는 땅휴김씨의 모습에 저희 마음 역시 뿌듯해졌습니다. 땅휴김씨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신 DGB대구은행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JL**



DGB대구은행 임환오 부행장님, 땅휴김님의 호치민적십자 관계자, DGB대구은행 서모터즈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중다일의 미국 친구, 박종휘군

4년 째, 매년 여름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박종휘 군이 훈춘으로 방문,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갑니다. 4년전 종휘군의 아버지 박교진 님(중다일 왕조선 대학등록금 후원자)과 함께 처음 훈춘에 올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 입학 앞둔 청년이 되었고, 올해에는 혼자 중다일에

방문하였습니다. 첫해의 어색함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원래 한 식구였던 듯 친형마냥 살갑게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함께 어울려 놀이도 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국 형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만남이 성숙한 만남으로 계속해서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①②③ 훈춘 방문한 박종휘군



중다일 7명의 졸업과 입학

9월 학기가 새 학년 새 학기인 중국의 6,7월은 졸업의 계절입니다. 입학시험은 3일에 걸쳐 거하게 진행되는데 비해 졸업식은 초간단,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대학교 졸업식 역시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아주 간소하게 치뤄집니다.

이번 해 다일어린이집은 소학생 박진우와 박진석, 중학생 최향미, 고등학생 전지향과 안춘연, 김강성, 대학생 최예화까지 총 7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아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9월, 상급학교 입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최예화의 대학등록금을 후원해주셨던 류앤, 한기모, 정락환(포콘스) 세 분의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한 자녀인 중국은 자식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또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기특한지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흠어지지 않고 아이들을 통해 열매 맺고 있음을 전해드리며 기쁨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다일**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최예화 양 대학졸업 모습(맨 오른쪽)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작전명 "스라이 쓰러"(Fresh Girl)

캄보디아 씨엠립 다일공동체가 위치한 프놈끄라움 및 풍크니어 지역의 아동, 청소년은 대부분 어려운 가계생계로 인해 학업유지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뛰어드는데 그 중 여학생들은 주로 톤레삽 호수에서 사진을 판매하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행위를 통해 가계의 소득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학교에 진학조차 하지 못 한 아이들이 많아 이곳 아이들은 기초적인 보건,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 다니더라도 보건교사가 별도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 현지 지역 여학생들은 2차 성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습득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용품인 생리대 역시 저소득층 여성들이 구입,

사용하기에는 고가의 제품인데다 현재 사업대상지역 인근에는 판매처마저 존재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보건, 위생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2017년 월드프렌즈 NGO봉사단(KCOC) 공모전을 통하여 '캄보디아 프놈끄라움&풍크니어 지역 여학생 대상 대안생리대 보급사업 '스라이 쓰러(Fresh Girl)'란 프로젝트 명으로 2017년 9월에서 11월까지 100여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사업 진행에 앞서 프놈끄라움 중,고등학교를 방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하루에 생리대를 한 개 사용하는 여학생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생리대 관련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학생들은 조사 대상자 전원이 이번 사업을 통해 대안생리대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길 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월경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보, 이에



생리대 사용 관련 설문조사 중

대안생리대 사업관련 프놈끄라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인터뷰



다른 신체변화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대처 방법 등을 익히게 하여 월경이 부끄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변화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학생들이 직접 면 생리대를 제작,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안생리대 사진(예시)

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후원을 통하여 더 많은 프놈프라움 및 풍크니어 지역의 여학생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사랑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어곤 뻬레야 예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대안 생리대 보급 관련 사업 설명 중



필리핀

PHILLIPHINES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Maayng Takna!(마아옹 따끄나!)

다일공동체가 까만씨 마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지 반년 이 다 되어 갑니다.

아무런 정보도 도움도 없이 그야말로 무작정 들어온 필리핀 세부 까만씨 마을, 그나마 잠시 있었던 마닐라 까비떼와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이 가난한 마을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까만씨 마을에서는 원주민 부족 회관으로 지어진 수상 가옥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확장된 장소는 중독에 빠진 부모들의 빈자리를 채워 줄 놀이터요, 언제나 찾아와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식당이요, 매일 매일 맛있는 빵이 구워지는 베이커리로 원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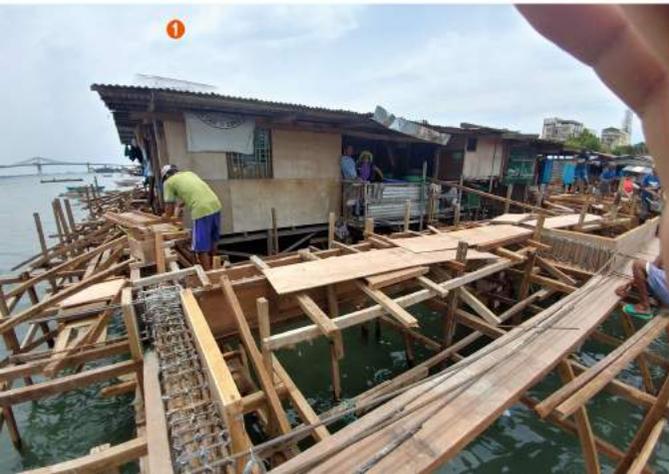
공사 진행과 동시에 마을 광장 중심에는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매일 까만씨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을 광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책으로 천막만 간단히 설치하여 빵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이 천막에 아이들의 생기가 더해져 이제는 천막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 예배

모든 것을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까만씨 마을의 변화가 이젠 제법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까만씨 다일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부로 오신 모세 형제님과 매일 마을의 쓰레기를 줍고 더러운 곳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던 이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가





빵퍼 준비 모습

사라져 깨끗해진 자리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놓은 꽃과 화분이 자리 잡았고, 대나무가 썩고 부러져 위험하던 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협력으로 튼튼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매일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니 마을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단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변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필리핀 원주민(LUMAD) 사회의 구성원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 명예 평화대사가 되어 원주민 이름과 등록증까지 받아 앞으로 다른 원주민 부족 마을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 맡겨진 일을 담대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17일 개원식을 앞둔 까만씨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을 광장 천막에서 빵만들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앞으로 매일 5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원주민 구성원들의 자립을 위한 베이커리를 열기 위해 오븐과 믹서, 롤러 등의 제빵 용품이 필요합니다.
2. 새로 지어질 까만씨 다일공동체가 아이들의 놀이터요 도서관이 되기 위해 각종 어린이 도서와 장난감, 교구 등이 필요합니다.
3. 물은 많으나 정작 먹고 씻을 물이 부족한 수상마을에 퍼져있는 각종 피부병과 수인성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연고, 비타민, 약품 등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 1 2 까만씨 교회 증축
- 3 새로 단장된 마을길
- 4 화단을 꾸민 마을주민



비를 맞으며 밥을 기다리는 아이들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기승을 부리는 말라리아 모기로부터 지켜주세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사역하는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은 시골에서 힘겹게 살던 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대도시 다르에스살람으로 무작정 상경한 분들이 정부 땅에 무허가로 흙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의 번지수(Plot Number)가 없습니다.

이 마을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허가 집이지만 먼저 땅을 점유하여 흙집을 짓고 살던 집주인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 벽돌을 사서 시멘트 벽돌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는 시멘트 벽돌집과 흙집들이 산만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우기철 비로 인해 구멍이 뚫린 흙집 내부와 모기장

빈민촌이지만 이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은 흙집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탄자니아는 3월에서 5월까지가 대우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한국의 장마철처럼 매일 엄청난 양의 비가 퍼붓습니다. 그러면 흙집들은 얼굴만한 크기의 구멍이 여기저기 생기거나 심할 경우 한 벽면이 거의 허물어질 위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라리아 모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작년에는 미국의 한 후원자님이 모기장을 후원해주셔서 250여 가정에 모기장을 선물했습니다. 올해는 300여 가정에 모기장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모기장**입니다. 집집마다



보도블럭을 깔고 차단막을 설치할 센터 우측 담장

모기장은 있지만 워낙 낡거나 여기저기 헤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기장 300개의 구입비용은 200만원**입니다. 쿤두치 아이들과 주민들의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 후원천사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따가운 햇살과 빗물로부터 지켜주세요!

요즘 밥퍼에는 9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배식 시간이 정오 12시인데 아이들은 평소 먹지 못하는 쌀밥 또는 빵과 주스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탄자니아의 햇살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강렬해서 저도 늘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면 퇴약별에 노출이 되고 맙니다. 비가 올 때는 온몸에 비를 맞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뜨거운 햇볕도 차단하고, 비가와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센터 밖 우측 담장에 보도 블럭을 깔고 천장에는 접이식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400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밥퍼를 위해 후원천사가 되어주실 분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dail**



센터 우측 담장에 설치할 접이식 차단막

 **탄자니아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 ① 웨터를 입고 최고야 외치는 3학년 어린이들
- ② 웨터를 입고 감사인사 드리고 있는 1학년 어린이들
- ③ 웨터 입고 기념사진 찍은 1학년 어린이들

한국의 여름철은 우간다의 겨울?

해발 1200~1300미터 즈음 되는 우간다는 지금 나름 겨울 철입니다. 여기에 비까지 오게 되면 기온이 섭씨 14도~18도까지 내려갑니다. 얇은 반소매 교복 한 벌만 걸치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신 후원천사 오혜숙님께서 키티코 정부초등학교의 전교생에게 웨터(교복)를 사 입힐 수 있도록 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웨터에 후원자 오혜숙님의 사랑까지 깃들어 있어 더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웨터를 입고 좋아하는 우간다 아이들의 모습, 참 예쁘죠? 아이들에게 맑은 웃음 안겨준 오성단 오혜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와 함께한 시간들, 행복했습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는 2017년 8월 1일부터 변창재 원장이 부임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가 세워지고 지금 여기까지 물심양면 사랑과 기도로 성원해 주신 후원자님들과 모든 다일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최홍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본부장

자원봉사자들의 향연

1988년 할아버지 한 분에게 나눔 밥 한 그릇이 29년째인 올해 1,000만 그릇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상급식을 통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십시일반 동참하여 주신 후원자들과 끊임없이 찾아와 땀을 흘리며 섬겨주시는 45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오늘 세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달리는 자원봉사자 김동열 님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관사로 일하는 김동열님은 어느 것이 본인의 직업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밥퍼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밥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두루 섭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참된 봉사자입니다. 김동열 봉사자님은 과거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팔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감사해서 여섯 나라에 배식비로 100불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물질로도 섬기는 자원봉사자 김동열 님. 당신이 있어 밥퍼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김동열 기관사님(우)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DAIL ANGEL'S HOSPITAL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입소자들의 마음의 안정과 치료를...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17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은 약 6개월 간 진행되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치료 또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님을 구인하기 위해 신중을 거듭, 최고의 강사진으로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은 한 달에 3회, 14시부터 15시까지 최대 15명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일작은천국 3층에서 진행됩니다.

한 달에 세 번 진행을 하고 있던 기존 미술 프로그램은 단순히 취미생활을 제공하는 목적에 그쳤다면 이번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은 입소자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함으로써 심리까지 치료를 해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할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여쭙보니 “너무 재미있고 강사님들이 강의도 열정적으로 잘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하는 동안은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좋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중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로 견학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일정을 들으신 어르신들은 벌써부터 들뜨신 듯 한데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덕에 입소자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입소자 한 분 한 분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되어질 수 있길 저희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2 미술심리치료





천국환송

입소자들의 마지막 가시는길...

다일작은천국은 중증환자와 암으로 인해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를 돌보고 있는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다일작은천국은 임종자들이 차가운 길 위에서 외로이 임종을 맞는 것이 아닌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소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화해를 하고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평소에도 입소자분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듯한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 늘 애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낸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가시는 길 역시 존엄한 죽음을 맞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일작은천국은 길거리에서 외로이 돌아가시는 분이 한분도 없을 때까지 이같은 마음으로 천국환송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작은천국 02-2213-8004**

이뿐 아니라 다일작은천국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입니다. 2014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7월까지 3건, 총 8건으로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천국환송프로그램입니다. 천국환송프로그램은 장례를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노숙인요양시설 중 다일작은천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직원들도 천국환송이라는 프로그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입관식과 발인식, 마지막 화장까지 직원들은 가족의 역할을 온맘 다해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천국환송



ALLWAYS HO를 찾습니다.

올해 6월, 약 3천여 만원의 금액을 입금해주신 ALLWAYS HO.
ALLWAYS HO란 것 외에는 입금자 정보가 없어
감사인사도 드리지 못 했는데요.
혹시 ALLWAYS HO란 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다일공동체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입금해주신 기부금은 다일공동체의 귀한 사역에 귀히 사용하겠습니다.”



수요일 진료 자원봉사 의사선생님을 구인합니다.

봉사일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13시부터 17시까지인데요.
진료 시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니,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많은 자원 부탁드립니다.

“15년 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무료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만으로 무료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다일천사병원, 그 기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대륙을 넘는 나눔의 사랑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으로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밥퍼에 와서 아름다운 봉사를 해주셨고, 가난한 신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과 섬김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레드엔젤

밥퍼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오는 대한민국 대표 응원단인 레드엔젤 팀 중 미용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레드엔젤 뷰티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금융 나눔재단 봉사팀

밥퍼의 오래된 정기봉사자들 중 한 팀인 하나금융 나눔재단 봉사 팀에서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다음 번 방문까지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작은천국 LITTLE HEAVEN



한성과학고 2학년팀

한성과학고등학교(교장:임용우) 학생들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습니다. 한성과학고는 1992년 설립된 이래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과학영재교육의 요람으로써 뛰어난 교육 여건과 최고의 교사진을 갖추고 연구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봉사 시작 전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고 노는 모습과는 달리 봉사 시작 후 어르신들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감명 받았습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며 말동무가 되어주고 안마를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한성과학고 학생들, 다음에도 다일작은천국과 함께해요!



경희고등학교

매년 꾸준히 봉사를 왔던 경희고등학교(교장:이규섭) 학생들이 이번 2017년에도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습니다. 작년에도 다일작은천국 건물을 깔끔하게 청소해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깔끔하게 환경미화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이 꿈을 갖고 희망찬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석관고등학교 학생들

석관고등학교(교장:유장전) 선생님께서 남학생들과 함께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안마도 해드리고, 어르신들과 담소도 나눠드리며 손자처럼 살갑게 구는 학생들, 어르신들 역시 오랜만에 오בות하게 손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일작은천국 직원들도 입소자분들께 항상 가족같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팔 NEPAL



한인교회 청소년부

네팔 한인교회(담임목사:임영춘) 청소년부에서 여름을 맞아 여름수련회 첫 프로그램으로 밥퍼를 방문했습니다. 배식과 설거지를 하는 30명의 학생들 얼굴에는 봉사 내내 기쁨과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봉사 말미,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또 찾고 싶다며 다음 방학 때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예뜨랑감사교회

예뜨랑 감사교회(담임목사:이윤복) 비전트립팀이 함께 밥을 나누었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적재적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며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었는데 아이들 역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여찌나 신나하였는지 모릅니다. 예뜨랑감사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우리교회

와우리교회(담임목사:박만규) 청년부 비전트립팀에서 네다일 밥퍼를 방문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해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싱글벙글 빛이 났습니다. 함께 나누며 섬겨준 청년들 덕에 비전센터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청년들의 삶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트남 VIETNAM



호치민한인여성회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호치민한인여성회(회장:이영숙)'에서 올해에도 여김없이 밥퍼를 찾아 주셨습니다. 호치민한인여성회 분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밥퍼에서 식사하시는 한분 한분에게 낮은 자세로 눈을 맞추며 사랑과 온정을 담아 밥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신 '호치민한인여성회'의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중국 CHINA



연변대학 교수님과 학생들

1년에 한 차례 다일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연변대학 사회복지 관련 담당 박미란 교수님과 연변대학 학생들. 교수님과 학생들은 올해도 역시 다일 어린이집을 방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청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CAMBODIA



최지혜, 배영실 후원님(7/4,5)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아동 후원자이신 최지혜, 배영실 선생님이 이른 휴가를 받아 캄다일을 방문해주었습니다. 후원 아이들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면 두 분의 얼굴은 발갈게 상기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기철이라 아이들 거처를 걱정한 후원자님들은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길지 않은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안 밥퍼에서 봉사를 해주었고, 봉사 후에는 오히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섬김의 미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청소년예술단(7/19)

관현악, 합창 두 팀으로 구성된 거창청소년예술단에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학부모 75명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를 실천 하려는 거창청소년예술단에서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퍼 봉사과 위생 봉사 등을 해주었으며 관악기 연주, 합창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꿈을 꾸며,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길 기대하며, 거창청소년 예술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필리핀 PHILLIPHINES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한동대학교(총장:장순홍)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의 중독상담 학회 봉사팀이 까만씨를 방문하여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사와 까만씨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5년간 매년 까만씨 마을의 중독예방을 위해 방문할 예정인 한동대 봉사팀은 그 어떤 봉사팀보다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맑은 날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하루 하루 즐겁게 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봉사 때는 이 열정적인 청년들을 통하여 더 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꿈다다

한 생명을 품다

꿈다일 캠페인은
다일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1:1 해외아동결연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에 사는 조이스예요.

부모님은 에이즈로 돌아가셔서 고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꿈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코미디언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거든요.

하지만 당장 먹을 음식과 밀린 학비를 해결해야 해서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빠으 라이 

캄보디아 /  / 10살



벌나데트 루이즈 

필리핀 /  / 11살



사리무 아미시 

탄자니아 /  / 6살



니루 바하드루 따망 

네팔 /  / 8살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국내신규후원회원 2017.06~2017.07</p>	<p>ALLWAYS HO, TILIN JUDE, VALEMBRUN, 강상현, 강양화, 김정규, 고갑천, 고영, 고유병선, 공희숙, 광근화, 광정선, 광성중학교, 구미시민교회고등부, 구태민, 권영현, 권옥로, 김경숙, 김경애, 김경임, 김광수, 김도훈, 김라경, 김령주, 김말레, 김미자, 김민경, 김민경, 김만규, 김민정, 김보라, 김보선, 김부열, 김부자, 김상식, 김서현, 김선영, 김성수, 김성화, 김수빈, 김수인, 김순화, 김쌤카페, 김영석, 김영숙, 김영주, 김윤진, 김재현, 김재황, 김정교, 김정임, 김정희, 김중우, 김주현, 김지운, 김태경하은소 김경복, 김태분, 김현주, 김형준, 김혜미, 김호덕, 김홍근, 김희경, 남영철, 남택용, 노경택, 노용준, 노은순, 노치순, 노피연&박흥국, 동대문홍플러스, 두가건축, 라온유치원(김형영), 명덕여자고등학교, 문수진, 문신환&김숙자&이지현, 박경숙(소망교회), 박길진, 박명숙, 박명희, 박명희, 박미라, 박선, 박선규, 박순옥, 박승중, 박영조, 박재민, 박점례, 박정현, 박정호, 박종성, 박종희, 박주희, 박지은, 박혜숙, 박해정, 박현택, 박희정, 박화순, 반수진&박경숙, 배근연, 배순덕, 백종하강사, 백희정, 베트남 다일공동체, 변두영, 사공태금, 사회적협동조합 신헌사회공헌재단, 서미애, 서보란, 서영민(이추역), 서울컨벤션고, 석명호, 석은지, 석종명, 선우유주, 성민미, 손승우, 손인숙, 손혜란, 송경희, 송민경, 송수완, 송숙, 신철호&최순희, 심만식, 심숙희, 심정보, 아이비케이이신용정보(주), 안선주, 양조영, 어경희, 엄설희, 에스더여전도회, 여승진, 여옥, 염광교회 종교등부, 오금옥, 오동훈, 오사난다, 오승교, 오재훈, 원정수, 유동수, 유재학, 유지수, 유하현, 유형선, 윤갑동, 윤성일, 윤호연, 윤홍식, 이강호, 이경란, 이경숙, 이기경, 이동하, 이동한, 이두라, 이말능, 이명숙, 이미애, 이상목, 이서현, 이성재, 이소연, 이숙자, 이승연, 이영도, 이영섭, 이영우, 이예성, 이예순, 이에준, 이원유, 이원주, 이유휘, 이정연, 이정이상김태, 이정희, 이종희, 이주아, 이준서, 이지영, 이지은, 이진수, 이진희, 이춘자, 이하나, 이현숙, 이혜정, 이호중, 이훈희, 이희성, 임명금(다와디엔피), 임순옥, 장동호, 장세진, 장승수, 장승혁, 장진호, 장혜연, 진지연, 진찬일, 정경아, 정다운, 정동섭, 정수연, 정수진, 정연옥, 정찬성, 조강현, 조묘연, 조봉건, 조승주, 조아름, 조용선, 조형주, 진안순, 진현희, 진짜커피사랑이 야기, 차경숙, 차경자, 최다혜, 최동빈, 최병섭최병혁, 최순옥, 최승실, 최승자, 최영한, 최원서(김규리), 최윤실, 최정숙, 최종일, 최철, 최필수강연주부부, 최형진, 추한성, 칼네아, 파란하늘태권스쿨, 하금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한순철, 한신희, 한은숙, 한은영, 하찬, 홍병철, 홍영호, 홍재갑, 홍혜림, 황용선, 황유선, 황은숙</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2017.6.16~2017.8.15</p>	<p>후원금 / 우리은행 군지역지점, 조용근, 최승일, 최정호, 최지혜 후원물품 / 김광숙(냉장고), 서울노숙인협회(손소독제,신세계상품권30만원), 쌍용양회(빙수용품,간식), 어린이의약품자원본부, 한미제약</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네팔 다일공동체 2017.6.16~2017.8.15</p>	<p>후원금 / 김정윤, 김중욱, 네팔한인교회중고등부, 대흥교회, 미국학생팀, 박종명, 안양아들람교회, 안양제일교회, 예뜨랑감사교회, 와우리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이지현, 전주안디옥교회 고등부, 황해진</p> <p>후원물품 / 동경동명국제그리스도교회(옷, 학용품 외), 부산영락교회(연필), 와우리교회(옷, 과자 외)</p>
<p>필리핀 다일공동체 2017.6.16~2017.8.15</p>	<p>후원금 / 1페소의기적, MJ아카데미, 김대경, 이성일 외, 이수영, 이태형, 천은영</p> <p>후원물품 / 박광수(휴대용빔프로젝터), 이태형(예초기, 사탕, 과자 외), MJ아카데미(의류, 가방)</p>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2017.6.16~2017.8.15</p>	<p>후원금 / 거창청소년예술단, 경주시사업어린이집연합회, 광주시의회, 권영애, 김대명, 김시걸&양정수 가족, 김시은, 김해철천교회, 단국대학교, 대전선교회, 목포경동교회학생회, 바람개비서포터즈, 법인화우, 산성교회, 새로운교회, 성안교회, 송화라이온스클럽, 신안산대학교부티과, 안산품의교회, 오영식&윤진숙, 정현진, 중국이청교회, 중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초대교회, 충성교회, 충심교회, 포항친환경공단추진협의회, 프놈펜제일교회, 프라임마이크로파이낸스, 한국스카우트연맹, 한인회, 한일장신대학교간호학과</p> <p>후원물품 / 거창청소년예술단(의류, 음악용품, 잡화), 경은주&유건(폐인팅재료후원\$200), 경주시사업어린이집연합회(식료품, 의류), 김시걸&양정수가족(잡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과(생필품), 대전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과(식료품), 대전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과(잡화), 바람개비서포터즈(의류, 학용품), 베트남다일공동체(잡화), 베트남롯데리아(베트남다일공동체/소쿠리1000개, 컵600개), 산성교회(의류), 산성교회(의약품), 새로운교회(생필품), 새로운교회(식료품, 잡화), 새로운교회(의류, 잡화, 학용품), 수원YMCA(의류, 잡화, 학용품), 신안산대학교부티과(식료품), 신안산대학교부티과(잡화, 학용품), 중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잡화), 프놈펜제일교회(쌀50kg, 과자400개), 하나투어(식료품), 한일장신대학교간호학과(의약품, 학용품)</p>
<p>베트남 다일공동체 2017.6.16~2017.8.15</p>	<p>후원금 / A PLUS, Beautiful Mind,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NAHAL, Ross Choi, Seung Hye, Choi, Eliana Choi, Joanna Choi, 권민혁님, 기업은행, DGB대구은행, 대장금, 대전광역시 호치민사무소, 밤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동욱님, 아산상선, 오희승님, 이경주 회장님(쌀후원), 참조은광성교회, 풍안호텔, 호치민중앙교회, 호치민한인여성회</p> <p>후원물품 / DGB대구은행(생활용품kit), 미국, 호주비전트립팀(초코파이),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쌀, 초코파이, 김, 바나나), 정해복지재단(우유, 공책)</p>
<p>중국 다일공동체 2017.6.16~2017.8.15</p>	<p>후원금 / 권윤경, 김나현, 김성재(Obey&Praise), 김시현, 다일출업생모임(2회), 박교진(박종휘), 산호세뉴비전교회, 연길홀트, 훈춘한인교회, 훈춘시제2교중</p> <p>후원물품 / 권윤경(정기 아동간식 지원), 산호세뉴비전교회(약품, 아동간식), 애심찰떡(떡), 연변대학학생들, 영광제빵(빵), 전체아동외식지원1(다일출업생차림), 전체아동외식지원2(다일출업생김용남부부), 훈춘시 각학교학생봉사팀</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017.6.16~2017.8.15</p>	<p>후원금 / 이해명, 일본봉사팀, 필라델피아 영생정로교회</p>
<p>미국 다일공동체 2017.6.16~2017.8.15</p>	<p>후원금 / 갈경석&은주, 김경옥, 김동현&동진, 김선식, 김양금, 김영준&김진아, 김종식, 남가주한소망교회, 박기찬, 박세윤, 박예준, 박옥순, 성경관, 유희숙, 윤수현, 이봉우, 이창근, 정만영, 정비하&정옥란, 조명자, 조은경, 지홍민&황선희, 함내한, 함선영</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32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정기후원	1:1 해외아동결연 (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기업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긴급한 사역에 우선으로 사용됩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예금주 :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ON M6N 4x7, CANADA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기타
월 _____ 원
-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fax 02-2243-8005  다일공동체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a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까비떼 지부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대표번호 02-2212-8004로 전화주시면 전 분원, 전 부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갈보리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 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통화가능시간 오전9시-오후6시)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홈페이지로 신청



<http://www.dail.org>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방문 → 후원하기 클릭 → 원하는 후원방법 클릭
일반후원, 프로젝트후원, 특별후원, 기업/단체후원, 다른방법

전화로 신청

02-2212-8004



다일공동체에 전화 → 통화 연결음 후 1번 누르기 → 후원관리실 연결

우편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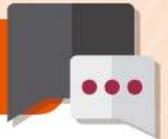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소식지 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 작성 → 다일공동체 주소 기입 후 우편으로 전달

카카오톡으로 신청

다일공동체 Yellow아이디



ID/플러스친구 검색 → 다일공동체 찾기 → 친구등록 완료 →

1:1채팅하기 클릭 → 원하는 후원방법 클릭

정기후원하기, 일시후원하기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방문(<https://www.facebook.com/dailcommunity>) 후

'좋아요', '팔로잉' 클릭 부탁드립니다. 한 번 클릭 시 1000원의 기부 효과가 있습니다.